

보호관찰 초범과 재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이 희 정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 성 철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본 연구는 보호관찰 초범과 재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개념을 비교하고자 한 연구이다. 평균연령이 17세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남자 초범 청소년 30명과 재범 청소년 30명 및 일반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3개의 도덕적 위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 대한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을 분석하였다. 도덕적 정서 반응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보호관찰 중인 초범 청소년과 재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정서반응에서 죄책감을 덜 느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정서 반응에서는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은 공감적 분노 반응을 덜 빈번하게 느꼈다. 가해자 입장에 대한 도덕적 정서 귀인에 대하여 일반 청소년은 초범 청소년과 재범 청소년에 비해 원인 의존적 귀인인 공감을 더 빈번하게 나타냈으며, 피해자 입장에 대한 도덕적 정서 귀인에서 무관심에 대한 반응이 일반 청소년보다 초범 및 재범 청소년에서 더 자주 나타나 국외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무정서적 특성(callous-unemotional traits)이 국내 청소년 집단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같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무정서적 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과 비사범(Diversion)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무정서적 특성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보호관찰 초범 청소년, 재범 청소년, 도덕적 정서 반응, 도덕적 정서 귀인, 무정서적 특성

최근 중학생이 유아를 성폭행하거나 초등학교에서도 집단 따돌림과 같은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여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제도 도입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소년범죄자는 1997년을 정점으로 절대수에 있어서는 감

소추세이나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1980년대 초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인구대비별 소년범은 줄지 않고 있다(경찰 백서, 2003).

소수의 범죄자가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르

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소년 재범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35%를 상회하고 있어 현행 재범방지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 제시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군 성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정신병질(psychopathy)’라는 심리 특성을 가장 중요한 재범 요인으로 지적한다. 자기중심적이고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동정심과 수치심이 부재하며 계획 능력과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성인범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도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 범죄자의 어린시절의 경험과 발달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정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도덕적 정서의 정의

도덕적 정서는 도덕적 과실(transgression)에 직면하여 자기(self)와 관련된 판단을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서를 말한다. Hoffman(1983)은 도덕적 정서가 인간 행위의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자라 하였으며, 다양한 도덕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서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한 이유와 관련되어 있는 도덕적 반응의 일부분을 뜻한다고 하였다.

비행 청소년에 대한 발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Piaget(1965), Kohlberg(1971), Turiel (1983), 백혜정과 이순목(2003) 등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 도덕적 판단 및 행동과 관련한 도덕적 정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서가 도덕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입장과는 달리, 수치심, 죄책감, 공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들이 도덕적 행동을 유발시키고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 가치에 대한 사고와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Damasio, 1994).

한편 도덕적 정서 귀인이란, 도덕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의 원인에 관한 추론을 뜻한다. 도덕적 갈등은 종종 도덕적으로 이탈된 행동으로 인한 보상이나 또래의 압력, 권위와 같은 외적 힘과 관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덜 진보된 추론은 외적 상황적 요소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는 반면, 더욱 진보된 추론은 도덕적 결정에 있어서 내적 요소에 비중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덜 진보된 추론 수준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정일 때 나타날 수 있다(Saltzstein, 1994).

도덕적 정서 연구는 정서에 관한 대뇌 피질연구에 의해 뒷받침 되어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도덕적 추론과 무정서적 측면의 관련성(Blair, 1997)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비행 청소년 연구자들은 정신병질과 관련된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무정서적 특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Beauchaine, 2003).

무정서적 특성이란, 비행 청소년들 중 특히 영유아기부터 반항성 행동을 나타내면서 비행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청소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비정상적 정서적 특성을 나타낸다. Beauchaine(2003)은 무정서적 특성을 “조종(manipulativeness), 무정함(callousness), 공감의 결여와 각성 저하에 대한 생리적 지표”를 통하여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Frick(1998)은 반

사회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예컨대 불안과 공포 수준이 낮은 것과 같이 특징적인 정서적 손상 양상을 나타내는 평생지속형 품행장애 청소년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서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Beauchaine(2003)은 불순종, 적대성이나 충동성과 같은 포괄적인 외현화 증상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신병질 구인에 특수한 무정서적 특성을 완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무정서적 특성의 본질, 발달 특성, 성인기까지의 변화 양상과 이에 대한 중재 방안을 앞으로의 연구에서 다루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정서적 특성의 중요성과 선행연구들

도덕적 정서가 행위를 결정한다고 볼 때,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 뿐 아니라 사랑과 존경 및 신뢰와 같은 긍정적 정서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범죄자들의 경우, 자기중심적이고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동정심과 수치심이 부재하는 것과 같은 무정서적 특성이 재범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발달심리학 영역 뿐 아니라 범정(forensic) 심리학과 같은 응용 심리학 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즉 죄책감이 없고 제한된 유형의 정서만을 나타내는 성인 수형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정신병질자에 대한 특성 중 무정서적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Hare, 1998; Hart & Hare, 1997; Lykken, 1995).

성인의 정신병질적 특성과 유사하게, 청소년

의 경우도 청소년 수용시설에 있는 반사회적 청소년 집단(Caputo, Frick, & Brodsky, 1999; Silverthorn, Frick, & Reynolds, 2001), 주간병동 환자(Christian, Frick, Hill, Tyler, & Frazer, 1997; Frick, O'Brien, Wootton, & McBurnett, 1994)와 학생 표본(Frick, Bodin, & Barry, 2000)에서도 무정서적 특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이같은 특성은 성인 표본에서의 정신병질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개념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무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반사회적 청소년은 타인에 대한 행동의 부정적 결과에 의해 덜 고통을 받고(Bla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Frick, et. al., 1994; Pardini, Lochman, & Frick, 2003), 타인에 대한 도덕 추론과 공감적 관심에서 더욱 손상되어 있으며(Blair, 1999; Fisher & Blair, 1998; Pardini, et. al., 2003), 다른 아동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슬픔 표현을 덜 인식한다(Blair, et. al., 2001; Stevens, Charman, & Blair, 2001).

무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범정, 임상 및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더욱 심각한 공격적 행동을 자행하는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Frick & Marsee, 인쇄 중), 품행 문제와 무정서적 특성을 함께 나타내는 아동은 성인 정신병질 문헌과 일치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Barry, Frick, DeShazo, McCoy, Ellis, Loney, 2000; Blair, 1999; Frick, Lilienfeld, Ellis, Loney, & Silverthorn, 1999; Loney, Frick, Clements, Ellis, & Kerlin, 2003).

그러나 무정서적 특성이 그야말로 일반 청소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범죄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성격 특성에서 상대적으로 볼때 극단적인 성격 측면으로 볼 것인지, 또는 기질과 같이 타고난 측면이 더 많은지 (Viding, 2004; Viding, Blair, Moffitt, & Plomin, 2004), 아니면 도덕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의 비중이 더 많은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서적 특성이 부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청소년의 반사회적 특성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충동성이나 ADHD 성향보다도 재범을 예측하는데 강력한 위험 요소라고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Frick, Stickle, Dandreaux, Farrell, & Kimonis, 2005). Frick, Stickle, Dandreaux, Farrell 과 Kimonis(2005)는 3, 4, 6, 7학년 98명 아동을 대상으로 10년간 4번의 시점에서 경찰 접촉 여부, 공격성, 적대성, 재산 범죄, 약물 범죄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충동성과 과잉활동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무정서적 특성이 높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가장 오랫동안 비행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무정서적 특성에 대한 생리적 접근을 취하는 Vitale, Newman, Bates, Goodnight, Dodge 와 Pettit(2005)는 정서적 소원성(detachment)을 나타내는 범죄자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 속에서도 발견되며, 성장과정에서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타나며, 도구적 공격성을 빈번하게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무정서적 특성을 타고난 성향으로 보려는 경향이 높다.

Blair(1995)는 정신병질적 범죄자를 설명하는 가운데 무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범죄자는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무감각하고 공포 반응에 대한 역치도 낮고 누군가 상처받

는 것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포를 억제하는 뇌기능에서의 문제와 관련되며(Blair, et. al., 2001; Blair, Jones, Clark, & Smith, 1997)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초기 부정적 정서 반응은 타인의 고통을 이끄는 행동에 조건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건화 과정을 통하여 아동은 이같은 부정적 각성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억제하도록 학습하게 되어 생의 초기부터 부정적 정서에서의 기질적 결핍이 나타남을 암시하고 있다.

즉 Blair(1997)는 공격적인 청소년은 고통스런 단서에 의해 공격을 철회하거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정서 기제가 발달하지 못하여 결국 성인기 정신장애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며, 특히 공포와 슬픔 정서에 둔감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서 및 행동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을 무정서적 특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눈 후, 도덕적 위반과 인습적 위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슬픔과 죄책감 이야기 조건에서 정신병질적 경향성을 가진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즉 죄책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는 폭력 억제 기제(Violence Inhibition Mechanism)의 활성화에 의해 나타나는 각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의 산물이라고 보았으며, 비행 청소년은 폭력 억제 기제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죄책감과 공감을 덜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 청소년, 소년원과 소년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국내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도 전과가 더 많아질수록 정서에 대한 민감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Viding, Blair, Moffitt 과 Plomin(2004)은 7세

아동의 정신병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반사회적 행동보다도 무정서적 특성이 더 유전적으로 내재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Taylor, Loney, Bobadilla, Iacono와 McGue(2003)는 정서적 소원성 척도와 반사회적 척도의 40%가량 공유된 유전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여, 무정서적 특성의 선천적 경향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반사회적 성격 특성도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듯이 무정서적 특성 역시 유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찍이 Bowlby(1946)는 ‘정서적이지 않은 정신병질(affectionless psychopathy)’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정신병질은 가족 붕괴와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공감의 부재는 초기 시설에서의 애정 박탈을 경험한 아동에 특징적인 ‘탈억제적 애착’의 특성 일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O'Connor, Bredenkamp, Rutter, & the English and Romanian Adoptees Study Team 1999; O'Connor, Rutter, & the English and Romanian Adoptees Study Team, 2000).

방법론적으로 볼때, Vasey, Kotov, Frick과 Loney(2005)는 무정서적 특성에 대한 자기 보고식 평가와 부모 및 교사 평정에 의한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신병리와 관련하여 보고자에 따라 낮은 일치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빈번하고, 일반적으로는 청소년의 자기보고가 부모나 교사의 보고보다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Rutter, 2005), 타인의 감정에 대한 평가가 결여되어 있는 피험자의 경우 자신이 보고한 질문문항에 대하여 타당하게 답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요약하면, 무정서적 특성은 성인 정신병질

자 연구에서 청소년기 및 아동기 정신병질자의 개념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개념으로서, 측정방법, 선천적 특성 여부, 이에 대한 치료적 함의 등의 측정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범예측과 관련하여 충동성이나 과잉활동성 만큼이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동기 무정서적 특성에 대한 발달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보다 필요한 상황이다(Rutter, 2005).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초범과 재범군으로 구분하여 도덕적 위반 행동 이야기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의 두 차원에서 무정서적 특성(callous-unemotional traits)이 국내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에서도 나타나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은 도덕적 정서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일반 청소년,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은 도덕적 정서 귀인에서 차이가 있는가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초범 청소년 30명, 재범 청소년 30명과 일반 청소년 30명이었다. 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PIIS)에 입력되어 있는 사회 인구학적 정보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하여 초범 청소년과 재범 청소년을 분류하였으며, 일반 청소년은 경기도 소재 인문계 중·고등학교 3곳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의 재범 청소년이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자가 아니라, 초기 상담과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기소유에 이상의 범죄 경력이 2건 이상인 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재범 청소년 집단은 당해 보호관찰 사건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당해 보호관찰 사건이 첫 번째 범행인 경우는 재범 집단이 아닌 초범 청소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초범 및 재범 청소년 모두 절도와 폭력범이 37명,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가 병합된 경우, 13명, 성폭력 5명, 사기 10명으로 초범 청소년과 재범 청소년의 범죄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2004년 7월에서 2005년 7월 사이에 본 연구자와 본 연구자로부터 면접 방법을 숙지한 범죄 심리사수련생 3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 측정 도구는 Arsenio, Sacks와 Shea(1999)가 사용했던 도구 내용을 번역하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과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이 도구는 두 명의 친구관계에서 벌어진 신체적 괴롭힘, 훔치기와 거짓말이라는 도덕적 위반 행동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도덕적 위반 사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등장하며 이러한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도덕적 정서 반응과, 왜 그렇게 느꼈는가 하는 도덕적 정서 귀인을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세

가지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야기 1>은 신체적 괴롭힘에 관한 이야기이다. 두 친구가 음악회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던 중, 곧 표가 다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등을 떠밀어 기다리던 줄에서 밀쳐내고 마지막 표를 받게 된 상황이다.

<이야기 2>는 훔치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 친구가 이모부로부터 선물 받은 청바지를 학교 사물함에 넣어두고 체육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간 사이 다른 친구가 그 친구의 청바지를 몰래 훔치는 상황이다.

<이야기 3>은 악의적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이다. 핸드폰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벌이는 이동용 홍보자동차의 위치를 알려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았으나,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고의로 반대 방향을 가르쳐 주어 친구가 실제 이동용 자동차가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다.

도덕적 정서 반응은 강혜자와 한덕웅(1994)의 서에 관한 용어들과 Shaver, Schwartz, Kirson과 O'Connor(1987)에 의한 정서 범주, 그리고 Arsenio, Sacks와 Shea(1999)의 연구와 품행장애 및 일반 청소년과의 1, 2차 예비 면접을 실시하여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당황, 죄책감의 6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 적합성과 이야기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였으며, 정서 범주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정서 범주 별 분석자간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연구 대상이 아닌 일반 청소년 20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도덕적 정서 반응에 관한 본 연구자와 다른 평정자간 일치도는 Pearson 상관계수로 .86이었다. 도덕적 정서 반응의 종류

표 1. 도덕적 위반 상황에 대한 정서반응의 범주와 예

범주	정서 예
기쁨	기쁘다, 즐겁다, 편안하다, 흐뭇하다, 유쾌하다
슬픔	슬프다, 아쉽다, 무기력하다, 속상하다
분노	화나다, 분하다, 억울하다
공포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걱정스럽다,
당황	당혹스럽다, 놀라다, 긴장되다, 흥분하다
죄책감	죄책감, 미안하다, 후회스럽다

와 청소년의 정서 반응의 예는 표 1과 같다.

도덕적 정서 귀인의 하위 범주는 표 2에 따라 구분되었다. 표 2의 범주는 Arsenio와 Kramer(1992)와 Arsenio 등(1999)이 최종 분류한 범주들이다. 세 가지 이야기 각각에 대하여 나타난 정서 귀인에 1점씩 채점하였다. 도덕적 정서 귀인의 하위 범주별 본 연구자와

표 2. 도덕적 위반 상황에 대한 도덕적 정서귀인과 예

범주	특성	범주별 특성	예
공감 (empathy)		아동이 제시된 상황 속의 인물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누군가 내게 그런 행동을 하면, 저라도 화가 날 거예요”.
도덕 평가 (moral-overt reference)		공평성 또는 공정성과 관련하여 응답함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에요”
피해 (victimization)		자신의 물질적 또는 심리적 손해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응답함	“다른 아이의 청바지를 훔치면, 그 아이가 싫어하니까요”
물질적 결과 (material outcome)		물건에 대한 손익과 관련하여 응답함	“그 친구가 갖고 싶어 하던 핸드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무관심 (emotional distancing)		타인의 감정에 관심이 없고, 타인의 피해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함	“청바지를 잘 보관하지 않은 게 잘못이지요, 저랑 상관 없는 일이죠”

다른 평정자간 일치도는 Pearson 상관계수로 .83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2차례에 걸친 예비 면접을 실시하였다. 1차 예비 면접은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에 대한 측정에 대한 질문을 결정하고 연구절차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2차 예비 면접에서는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 범주에 대한 분석자간 일치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면접은 2004년 7월에서 2005년 7월 사이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

도덕적 위반 행동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각각에서 등장하는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및 귀인을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집단과 일반 집단간 χ^2 검증을 통하여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 과

본 절에서는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도덕적 정서 반응과 도덕적 정서 귀인을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 청소년,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반응

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

표 3.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N=90)

집단	기쁨	분노	공포	당황	죄책감
일반 (n=30)	31(34.4)	2(2.2)	14(15.6)	1(1.1)	42(46.7)
초범 (n=30)	48(53.3)	2(2.2)	3(3.3)	5(5.6)	32(35.6)
재범 (n=30)	55(61.1)	4(4.4)	3(3.3)	4(4.4)	24(26.7)
계	134(49.6)	8(3.0)	20(7.4)	10(3.7)	98(36.3)

$\chi^2=27.50$ $p<.001$

서 반응을 비교해 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은 일반 청소년 집단과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chi^2=27.50$, $p<.01$). 일반 청소년 집단은 죄책감(46.7%), 기쁨(34.4%), 공포(15.6%), 분노(2.2%), 당황(1.1)의 순으로 나타났고, 초범 청소년 집단은 기쁨(53.3%), 죄책감(35.6%), 당황(5.6%), 공포(3.3%), 분노(2.2%)순으로 나타났다. 재범 청소년 집단은 기쁨(61.1%), 죄책감(26.7%), 분노와 당황(4.4%), 공포(3.3%)순으로 나타났다.

추후검증으로 두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을 때, 일반 청소년 집단과 초범 청소년 집단 ($\chi^2=14.97$, $p<.01$)과, 일반 청소년 집단과 재범 청소년 집단 ($\chi^2=25.07$, $p<.001$) 간 차이가 나타났으나, 초범 집단과 재범 집단 ($\chi^2=2.40$, $n.s.$)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

표 4.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N=90)

집단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당황
일반 (n=30)	1(1.1)	11(12.2)	55(61.1)	4(4.4)	19(21.1)
초범 (n=30)	4(4.4)	9(10.0)	36(40.0)	5(5.6)	36(40.0)
재범 (n=30)	17(18.9)	9(10.0)	15(16.7)	2(2.2)	47(52.2)
계	22(8.1)	29(10.7)	106(39.3)	11(4.1)	102(37.8)

$\chi^2=55.64$ $p<.001$

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55.64$, $p<.001$). 일반 청소년 집단은 분노(61.1%), 당황(21.1%), 슬픔(12.2%), 공포(4.4%), 기쁨(1.1%)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보호관찰 초범 청소년 집단에서는 분노와 당황(40.0%), 슬픔(10.0%), 공포(5.6%), 기쁨(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범 청소년 집단은 당황(52.2%), 기쁨(18.9%), 분노(16.7%), 슬픔(10.0%), 공포(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적절한 공감적 반응에 의한 분노 이외에 당황하거나 기뻐하기도 하였다.

추후검증으로 두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여 본 결과, 일반 청소년 집단과 초범 청소년 집단 ($\chi^2=11.33$, $p<.05$)과, 일반 청소년 집단과 재범 청소년 집단 ($\chi^2=34.87$, $p<.001$), 초범 집단과 재범 집단 ($\chi^2=19.44$, $p<.001$)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귀인

본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응답한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χ^2 검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을 살펴보면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chi^2=44.69$, $p<.001$). 일반 청소년 집단은 물질적 결과(40.0%), 괴롭힘(28.9%), 공감(18.9%), 도덕(7.8%)과 무관심(4.4%)순으로 나타났으며, 초범 청소년 집단은 물질적 결과(55.6%), 도덕(23.3%), 괴롭힘

표 5.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N=90)

집단	공감	도덕	괴롭힘	물질적 결과	무관심
일반 (n=30)	17(18.9)	7(7.8)	26(28.9)	36(40.0)	4(4.4)
초범 (n=30)	3(3.3)	21(23.3)	14(15.6)	50(55.6)	2(2.2)
재범 (n=30)	1(1.1)	17(18.9)	16(17.8)	44(48.9)	12(13.3)
계	21(7.8)	45(16.7)	56(20.7)	130(48.1)	18(6.7)

 $\chi^2=44.69$ $p<.001$

표 6.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N=90)

집단	공감	도덕	괴롭힘	물질적 결과	무관심
일반 (n=30)	11(12.2)	13(14.4)	29(32.2)	31(34.4)	4(4.4)
초범 (n=30)	6(6.7)	16(17.8)	31(34.4)	2(2.2)	37(41.1)
재범 (n=30)	4(4.4)	10(11.1)	31(34.4)	2(2.2)	43(47.8)
계	21(7.8)	39(14.4)	91(33.7)	35(13.0)	84(31.1)

 $\chi^2= 84.74$ $p<.001$

(15.6%), 공감(3.3%), 무관심(2.2%)순으로, 재범 청소년 집단은 물질적 결과(48.9%), 도덕(18.9%), 괴롭힘(17.8%), 무관심(13.3%)과 공감(1.1%)으로 나타났다.

추후검증으로 두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을 때, 일반 청소년 집단과 초범 청소년 집단($\chi^2=23.35$, $p<.001$)과, 일반 청소년 집단과 재범 청소년 집단($\chi^2=35.01$, $p<.001$) 간 차이가 나타났다. 초범 집단과 재범 집단($\chi^2=9.08$, $n.s.$)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은 표 6에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84.74$, $p<.001$). 일반 청소년 집단은 물질적 결과(34.4%), 괴롭힘(32.2%), 도덕(14.4%), 공감(12.2%)과 무관심(4.4%)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초범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무관심(41.1%), 괴롭힘(34.4%), 도덕(17.8%), 공감(6.7%)과 물질적 결과(2.2%)의 순으로, 보호관찰 재범 청소년의 경우는 무관심(47.8%), 괴롭힘(34.4%), 도덕(11.1%), 공감(4.4%)과 물

질적 결과(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후검증으로 두 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을 때, 일반 청소년 집단과 초범 청소년 집단($\chi^2=53.89$, $p<.001$)과, 일반 청소년 집단과 재범 청소년 집단($\chi^2=82.37$, $p<.001$) 간 차이가 나타났다. 초범 집단과 재범 집단($\chi^2=2.30$, $n.s.$)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 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서반응 및 정서 귀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가해자 입장에서의 정서 반응은 일반 청소년 집단과 범죄 청소년 집단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여 보면, 일반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을 비교하면, 기쁨 정서는 보호관찰 재범 청소년이 61.1%, 보호관찰 초범 청소년이 53.3%로, 일반 청소년이 34.4%로 나타났다. 죄책감 정서는 일반 청소년 46.7%, 초범 청소년 35.6%, 재범 청소년 26.7% 순으로 나타났다. 죄질이 심각해질수록 가해자에 대하여 죄책감을 덜 느끼고 기뻐하는 것은 부정적 특성에 관한 Frick, Cornell, Barry, Bodin과 Dane(2003)의 연구와 Frick과 Morris(2004)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공포 정서의 경우도 일반 청소년은 15.6%가 공포를 느낀 반면, 초범 집단과 재범 집단은 3.3%만이 공포를 경험한 것은 공포 성향과 양심발달을 관련시킨 연구들(Asendorf & Nunner-Winkler, 1992)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Blair 등(Blair, 1997; Bla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Blair, Jones, Clark, & Smith, 1997)의 부정적 정서 각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연구 결과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공감적 관심의 발달이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Arsenio와 Lemerise(2004)가 정서의 역할을 통합하여 설명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보처리의 첫 단계에서 공격적인 행위 이후에 기뻐하는 반응은 공격행위를 영속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관리 지향적 재발 예방기법에서 '위험 상황'에 노출하는 경우(박광배, 2002),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의

보다 적응적인 정서 반응을 다루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초범 및 재범 보호관찰청소년 증재 프로그램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도덕적 위반 행위를 하고 난 후, 처벌 또는 미래의 일에 대한 주의 전환 전략을 통하여 타인의 고통에 대한 회피가 아닌 주의집중을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서 증재 프로그램(Rickson & Watkins, 2003; Field, 2002; Bowling, Kearney, Lumadue, & Germain, 2002)이 요구된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피해자에 대한 정서 반응으로서 일반 청소년 집단과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을 비교했을 때, 일반 청소년 집단은 분노(61.1%) 정서가, 초범 청소년 집단은 분노와 당황(40.0%) 정서가, 재범 청소년 집단은 당황(52.2%), 기쁨(18.9%), 분노(16.7%)의 순으로 나타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정서의 유형이 달리 나타났다. 추후 검증 결과, 초범 청소년 집단과 재범 청소년 집단에서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1 참조), 기쁨(4.4% 대 18.9%), 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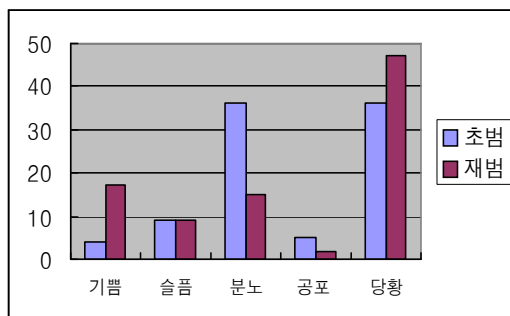


그림 1.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반응

(40.0% 대 16.7%), 당황(40.0% 대 52.2%) 정서의 경우로 미루어 볼 때, 죄질에 따라 정서 반응에 차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피해를 당하고도 기뻐하거나 당황스러워 하거나 분노를 덜 나타내는 반응은 외부 사건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거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서 조절이란, 피해를 당했을 때 단순히 괜찮다거나 당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과 관련되므로(Cole, Michel, & Teti, 1994), 일반 청소년에 비해 초범 및 재범 청소년이 나타내는 반응은 정서의 적응적 측면과 관련해 볼 때, 피해 상황에 다소 무감각해져서 당황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Hoffman(1975)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때, 이에 대한 공감적 고통은 그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한 공감적 분노로 변하게 되며, 적절한 수준에서의 분노 반응을 적응적인 것으로 볼 때,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은 적응적 정서반응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분노반응은 적응적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수단과 목적에 대한 사고에 관한 인지적 능력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재범 청소년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경우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분노 반응과 기쁨 및 당황 정서를 학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죄질의 경중에 따라 차별화된 교정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Blair(1997)의 신경 생물학적 연구에서 제안하듯이, 정신병질적 청소년들이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지,

확신하긴 어려우나 이에 대한 확인은 미래의 연구과제로 볼 수 있으며, 좀 더 직접적인 실험 방법에 의해 초범 청소년과 재범 청소년의 정서 반응에 대하여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가해자 입장에서의 정서 귀인을 살펴본 결과, 일반 청소년 집단과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p<.001$). 일반 청소년 집단은 공감(18.9%) 반응이 초범(3.3%) 및 재범 청소년(1.1%)집단에 비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재범 청소년은 무관심(13.3%)으로 답변한 비율이 일반(4.4%) 청소년집단과 초범(2.2%) 청소년 집단에 비해 높았다.

추후 분석에서 비록 초범 청소년 집단과 재범 청소년 집단간 두 집단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일반 청소년 집단(18.9%)에서 공감 범주는 범죄 청소년(초범 3.3%와 재범 1.1%)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도덕 범주의 경우 일반 청소년 집단(7.8%)에 비해 오히려 범죄 청소년 집단에서 더 빈번하게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첫째, 공감 범주와 도덕 범주 모두 원인 의존적 귀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 청소년들 입장에서 공감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반면, 범죄 청소년들은 단순히 공평성과 같은 도덕적 평가 측면으로 답변한 것 때문

일 수도 있겠고, 둘째는 백혜정과 이순목(2003)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의 부적응 청소년들의 경우 도덕 판단에서는 이기적 지향과 같은 낮은 단계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공정성과 이상주의적 평가를 나타낸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부분은 인지와 정서의 괴리의 측면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집단이 비교적 적은 표본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다양한 연구대상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및 범죄 청소년 전체집단이 응답한 비율에 있어서 물질적 결과에 48.1%의 청소년들이 귀인한 것으로 볼 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도덕과 관련된 원인 의존적 귀인보다는 물질적 결과와 같은 결과 의존적 귀인 양상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동시대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범죄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예방적 도덕 교육이 광범위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하였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

피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을 일반 청소년 집단과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 집단간 비교해 보면 무관심 범주에서 일반(4.4%) 청소년에 비해 초범(41.1%) 및 재범(47.8%) 청소년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공감 범주에서도 일반(12.2%) 청소년과 초범(6.7%) 및 재범(4.4%) 청소년에서 차이가 가해자 입장에서의 도덕적 정서 귀인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역시 무정서적 특성(callous-unemotional traits)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Stickel & Frick, 2002), 전체 청소년 집단의 답변 비

율을 고려해 볼 때, 괴롭힘(33.7%)과 무관심(31.1%)으로 답변하였으며, 공감(7.8%)이나 도덕(14.4%)와 같은 원인 의존적 귀인 양상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첫째, 무정서적 특성에 대한 탐색을 세가지 도덕적 위반 이야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였으나, Farrington(2005)은 자기 보고식 측정 방법과 교사나 부모에 의한 평정은 상관이 있더라도 미약하다고 하였다. James, Blair와 Coles(2000)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서 과제와 동시에 교사나 부모에 의한 행동 평가 방법을 통하여 관련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간접적으로 무정서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 대상과 표본이 적다는 점이다. 실제로 표본 청소년들과 죄질의 정도가 높은 소년 교도소나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집단을 동시에 비교할 경우, 도덕적 정서 반응과 귀인은 더욱 분명하였을 것(이수정, 고선영, 이준근, 2004)이므로, 보다 다양하고 더 많은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재범자와 초범자의 비교를 횡단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청소년의 발달단계별로 추적하여 보다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비교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한 개인의 범죄행위에는 대부분 유아시절의 전조행위(precursor behavior)가 수반되며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범죄성향, 초범행위의 시작시점, 범죄행위의 유형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장래 범죄 및 비행의 양과 질은 차별화되므로(Saltaris, 2002). 종단적 연구가 미래 연구 과제로 남겨져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관찰 중인 초범 청소년과 재범 청소년은 일

반 청소년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정서반응에서 죄책감을 덜 느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정서 반응에서는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청소년은 공감적 분노 반응을 덜 빈번하게 느꼈다. 가해자 입장에 대한 도덕적 정서 귀인에 대하여 일반 청소년과 초범 청소년에 비해 재범 청소년은 공감이나 도덕과 같은 원인 의존적 귀인보다는 괴롭힘이나 물질적 결과와 같은 결과 의존적 귀인 양상을 나타냈으며, 피해자 입장에 대한 도덕적 정서 귀인은 무정서적 특성 (callous-unemotional traits)과 같은 무관심에 대한 반응이 일반 청소년보다 초범 및 재범 청소년에서 더 자주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단계의 초범 및 재범 청소년에 대하여 도덕적 정서의 특성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이론적 측면에서 양심발달 모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질 특성 가운데, 어떤 기질 유형이 적절한 정서 조절에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문제가 되는지,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저해하는 중요한 인지적 기술이 무엇인지, 정상적인 죄책감과 공감 발달을 막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적 차원에서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법절차에 있어서 비범죄화 정책을 우선시 하므로, 청소년 범죄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증진되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처벌만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청소년으로 선도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중재 프로그램의 다양한 도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비행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강혜자, 한덕웅 (1994). 정서의 공발생 경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3(1), 207-218.
- 경찰백서 (2003). 경찰청.
- 김경희 (200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죄책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35-55.
- 박광배 (2002). *법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백혜정, 이순목 (2003).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판단 및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35-154.
- 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고위험 비행청소년들의 역기능적 정서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8(3), 1-13.
- Arsenio, W., & Lemerise, E. (2004). Aggression and moral development: Integrating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moral domain models. *Child Development*, 75 (4), 987-1002.
- Arsenio, W., Sacks, B., & Shea, T. (1999). *Juvenile offenders' and comparison adolescents' conceptions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empath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Asendorff, J. B., & Nunner-Winkler, G. (1992). Children's moral motive strength and temperamental inhibition reduce their egoistic behavior in real moral conflicts. *Child development*, 63, 1223-1235.
- Barry, C. T., Frick, P. J., DeShazo, T. M., McCoy, M. G., Ellis, M., & Loney, B. R. (2000). The importa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for extending the concept of psychopathy to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335-340.
- Beauchaine(2003). Taxometric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 15, 501-527.
- Blair, R. J. R. (1995). A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morality: Investigating the psychopath. *Cognition*, 57, 1-29.
- Blair, R. (1997). Moral reasoning and the child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5), 731-739.
- Blair, R. (1999). Responsiveness to distress cues in the child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135-145.
- Blair, R., Colledge, E., Murray, L., & Mitchell, D. (2001). A selective impairment in the processing of sad and fearful expression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491-498.
- Blair, R., Jones, L., Clark, F., & Smith, M. (1997). The psychopathic individual: A lack of responsiveness to distress cues? *Psychophysiology*, 34, 192-198.
- Bowlby, J. (1946). *Forty-four juvenile thieves. Their characteristics and home life*. London: Bailliere, Tindall & Cox.
- Bowling, S., Kearney, L., Lumadue, C., & Germain, N. (2002). Considering justice: An exploratory study of family therapy with adolescen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8(2), 213-223.
- Caputo, A., Frick, P., & Brodsky, S. (1999). Family violence and juvenile sex offending: Potential mediating roles of psychopathic traits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woma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 338-356.
- Christian, R., Frick, P., Hill, N., Tyler, L., & Frazer, D. (1997). Psychopathy and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II. Implications for subtyping children with conduct proble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233-241.
- Cole, P., Michel, M., & Teti, L.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40), 73-100.
- Damasio, A. R.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ew York: Avon Books.
- Farrington, D. (2005). The importance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4), 489-497.
- Field, T. (2002). Violence and touch deprivation in adolescents. *Adolescence*, 37(148), 735-749.
- Frick (1998). *Conduct disorders and severe antisocial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Frick, P., Bodin, S., & Barry, C. (2000). Psychopathic traits and conduct problems in community and clinic-referred samples of children: Further development of the psychopathy screening Device. *Psychological Assessment*, 12, 382-393.
- Frick, P., Cornell, A., Bodin, S., Dane, H., Barry, C., & Loney, B.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developmental pathways to severe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9, 246-260.
- Frick, & Hare (2001). *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 Toronto, ON: MultiHealth Systems.
- Frick, P. J., & Lilienfeld, S. O., Ellis, M., Loney, B., & Silverthorn, P. (1999). The association between anxiety and psychopathy dimensions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383-392.
- Frick, P. J., & Marsee, M. (in press). Psychopathy and developmental pathways to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In C. J. Patrick (Ed.), *Handbook of psychopathy*. New York, NY: Guilford Press.
- Frick, P., & Morris, A. (2004).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athways to conduct problems.

-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1), 54-68.
- Frick, P., O'Brien, B., Wootton, J., & McBurnett, K. (1994). Psychopathy and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700-707.
- Frick P. J., Stickle, T. R., Dandreaux, D. M., Farrell, J. M., & Kimonis, E. R. (2005).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predicting the severity and stabil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 (4), 471-487.
- Hare, R. D. (1998). Psychopathy, affect, and behavior. In D. J. Cooke, A. E. Forthe, & R. D. Hare (Eds.), *Psychopathy: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society*(pp. 105-138).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 Hart, S., & Hare, R. (1997). Psychopathy: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criminal conduct. In D. M. Stoff, J. Brieling, & J. Maser(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pp. 22-35). New York: Wiley.
- Hoffman, M. L. (1975). Development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07-622.
-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 T. Higgins, D. Ruble, & W. W. Hartup(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pp. 236-27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mes, R., Blair, R., & Coles, M. (2000). Expression recognition and behavioral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ognitive Development*, 15, 421-434.
- Kohlberg, L. (1971). From is to ought: How to commit to naturalistic fallacy and get away with it in the study of moral development. In T. Mischel(Ed.), *Cognitive development and epistem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Loney, B. R., Frick, P. J., Clements, C. B., Ellis, M. L., & Kerlin, K.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impulsivity, and emotional processing in antisocial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66-80.
- Lykken, D. (1995). *The antisocial personaliti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O'Connor, T. G., Bredenkamp, D., Rutter, M., & the English and Romanian Adoptees Study Team (1999). Attachment disturbances and disorders in children exposed to early severe depriva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0, 10-29.
- O'Connor, T., Rutter, M., & the English and Romanian Adoptees Study Team. (2000). Attachment disorder behavior following early severe deprivation: Extension and longitudinal follow-up.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703-712.
- Pardini, D., Lochman, J., & Frick, P.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social cognitive processes in adjudicated yout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ic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 364-371.
- Piaget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Putnins, A. (1997). Victim awareness programs for delinquent youths: Effects on moral reasoning maturity. *Adolescence*, 32(127), 709-714.
- Rickson, D., & Watkins, W. (2003). Music therapy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s in aggressive adolescent boys-a pilot study. *Journal of Music Therapy*, 40(4), 283-301.
- Rutter, M. (2005). Commentary: What is the meaning and utility of the psychopathy concep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4), 499-503.
- Saltaris, C. (2002). Psychopathy in juvenile offenders

- can temperament and attachment be considered as robust developmental precurso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729-752.
- Saltzstein, H. D. (1994). The relation between moral judgement and behavior: A social-cognitive and decision-making analysis. *Human Development*, 37, 299-312.
- Shaver, R.,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61-1086.
- Silverthorn, P., Frick, P., Reynolds, R. (2001). Timing of onset and correlates of severe conduct problems in adjudicated girls and boy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 171-181.
- Stevens, D., Charman, T., & Blair, R. (2001). Recognition of emotion in facial expressions and vocal tone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 201-211.
- Taylor, J., Loney, B. R., Bobadilla, L., Iacono, W. G., & McGue, M. (2003).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psychopathy trait dimensions in a community sample of male twi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633-645.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sey, M. W., Kotov, R., Frick, P. J., & Loney, B. R. (2005). The latent structure of psychopathy in youth: A taxometric investig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 411-429.
- Viding, E. (2004).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 1329-1337.
- Viding, E., Blair, R. J. R., Moffitt, T. E., & Plomin, R. (2004). Evidence for substantial genetic risk for psychopathy in 7-year-old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 1-6.

1차 원고 접수 : 2005. 10. 15

수정 원고 접수 : 2005. 11. 14

최종 게재 결정 : 2005. 11. 17

Moral Emotions in Juvenile Offenders on Probation and Comparison Adolescents

Hee-jung Lee

Cheonan University

Sung Chil Lee

Chunchon Probation & Parole Offic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moral emotions among juvenile recidivists and non-recidivists in the probation, and 2) to assess the attributions about moral emotions especially callous-unemotional traits. Three types of socio-moral transgression events were used to 30 juvenile recidivists, 30 non-recidivists, and 30 comparison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hi-squares to examine juvenile recidivists, non-recidivists and comparison adolescents' moral emotions and moral attribution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juvenile recidivists on probation, non-recidivists and comparison adolescents in moral emotions and moral attributions. Juvenile recidivists expected victimizers would feel happier and less guilty following acts of victimization(physical harmness, theft, and lying) than non-recidivists and comparison adolescents, while recidivists showed that victims would feel less angry than comparison adolescents. so our study supported that there are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korean delinquent samples. Also Juvenile recidivists showed victimizers would attribute outcome-dependent attributions such as material gains and comparison adolescents would feel more empathy and causal-dependent attributions such as fairness and justice. Future researches on moral emotions, especially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the theory of conscious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rvention programs, were suggested.

Keywords: recidivists, non-recidivists, moral emotions, moral attributions, callous-unemotional traits